남들 앞에서 왜 못해?

영화관에 다녀왔다. 영화관에 앉아 있었으나 영화를 거의 보지 못했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가상의 영화 대신 실제로 부둥켜안은 남녀들을 보았다. 내 양 옆, 앞, 뒷자리에서 젊은 연인들이 뽀뽀를 하고 있었다. 영화관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실내가 어두웠다면 그토록 적나라하게 목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내등이 꺼지고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한 뒤에도 영화관은 너무 밝았다. 문이 안 닫힌 줄 알고 나만이 아니라 많은 관객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까지 쳐졌건만, 그 문 위의 '비상구' 표시등이 너무 밝았다. 비-상-구, 세 글자와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그림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은 좌석을 환히 비추고, 영화 화면을 뿌옇게 바래게 할 정도였다. 영화에 집중하려고 화면을 쳐다보고 있어도 싸늘한 형광등 불빛이 뒤통수를 압박하고 뺨을 스쳐, 앞좌석에 동그란 머리통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

관객들은 상황에 적응했다. 그들은 역광 탓에 흐려진 화면을 무시했고, 그리고 그 역광을 무시했다. 저마다 앞좌석에 동그란 그림자를 드리운 머리통들이 갸웃갸웃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들한테 다 보인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데이트에 열중했다. 설사 화면이 바래지 않았다 해도 그들은 원래부터 영화가 목적이 아닌 듯했다. 스크린에 괴물이 등장하거나 아슬아슬한 모험 장면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주로 애인과 여러 가지 다정한 자세를 시도했다. 계속 부둥켜안고 있으려면 상당히 꼼지락거려야 한다는 걸 난 처음 알았다. 또 그들은 잠시 쉬는 동안 담소를 나누고, 팝콘이나 음료수를 사러 들락거리기도 했다. 특히 내 앞의 한 쌍은 남자가 애인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얼굴을 내려다보는 자세를 선호해서 한껏 상체를 곧추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허리를 옆으로 기울이지 않고는 흐린 화면이나마 볼 수가 없었다. 영화는 유난히 길었고 영화비 칠천 원이 아까워서 나는 나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영화관이 아니라 찻집에, 만날 사람 없어 혼자 앉아 있는 듯한 외로움마저 느꼈다.

주말에 영화관에 간 당신 잘못이라고, 내 하소연을 들은 사람들은 나를 탓했다. 주말에 영화관이 그런 줄 몰랐나? 컴컴한 영화관에서마저 하지 말라면 젊은 연인들은 어디 가서 뽀뽀하란 말이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나도 이해한다. 컴컴하니까 살짝 그럴 수도 있지 싶다. 그러나 뽀뽀를 하기 위해 영화관에 가는 것, 컴컴한 장소에서 주로 뽀뽀만 하는 것, 나는 그것마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십여 년 전, 한 여자 친구가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 피워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남의 눈이 두려워 못 그러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면 다른 행인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삼간다고 대답했다. 지독한

거짓말이었다. 당시에는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낯모르는 남자가 다가와 뺨을 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던 시절이라, 사소한 일로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나는 말 그대로 남의 눈, 힐끗힐끗 쳐다보거나 놀라서 돌아보거나 미간을 찌푸리고 노려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싫고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학교나 술집, 다방 같은, 비교적 차단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웠다. 그런 데서마저 담배를 못 피울 상황도 있어, 화장실에 가서 피우기도 했다. 여자라면 알겠지만 지금도 공중 화장실이나 음식점, 대중 목욕탕의 여자 화장실에는 몰래 피운 서글픈 꽁초들이 반드시 있다. 남자는 버젓이 할 수 있는 일이 여자라고 죄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랜 세월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웠던 자신이 비겁했다고 반성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숨어서 하고 있는 나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죄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법을 넘어선 관습과 도덕이라는 규율 또한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긴장 관계에서 밀고 밀리기도 하는 사회적 판단이다. 그리고 사회적 판단을 이루는 것은 개인적 판단이다. 개인적으로 먼저 판단해야 한다. 남들 앞에서 연인끼리 입 맞추는 행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컴컴한 데로 숨어들지 말든지,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전통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면 컴컴하다고 갑자기 과감하게 표변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요즘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밝은 데서 입 맞추는 젊은이들은 적고 컴컴한 데서는 너무 많다. 팔짱끼는 것마저 부끄러워하던 한심한 세대로서, 내게는 요즘의 청춘들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의 감정이 있다. 하지만 밝고 어두움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들을 보면 겉으로는 도덕군자요 속으로는 문란한 기성세대의 음탕함을 연상하기도 한다.

원칙이 없기 때문 아닐까. 사실 영화관은 스크린의 빛 때문에 암흑은 아니다. 비상구의 불빛까지 합세한 앞의 경우에도 연인들이 개의치 않았던 것을 보면, 그들의 끈질긴 열정은 '안 보인다고 치자'는 의식에서 나온다. 그것은 용기도 자유도 아니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무시다. 다른 데서라면 보기 좋으면 구경하고 싫으면 말겠지만, 공연장에서는 고개를 돌려버릴 수도 없이 감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방해받으며 앉아 있어야 한다. 남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예의도 사랑 앞에서는 잊혀지기 마련인가. 난 차라리 떳떳하게 뽀뽀하고 타인에 대한 예의는 지키는 연인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영화 관람과 데이트 양쪽을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상영이 끝난 뒤에 비상구 불빛에 대해서 항의하는 관객이 없었다는 것도 섭섭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어도, 판단을 중지하지 말라.

오수연

소설가.
94년 현대문학 장편공모에 '난쟁이 나라의 국경일' 당선
1997년 작품집 '빈집'
2001년 '부엌' 출간
2001년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